러시아 출신 스님의 평화 위한 기도

모국의 이웃나라 침공 큰 충격
나라 가리지 않고 희생자 위령
"상대 배려 마음이 충돌 없애"
살아있는 생명 대한 존엄 강조

박영빈 객원기자


희생자들 모두의 넋을 기리며 평화를 기도하는 볼코고노프 스님.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달째.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양국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러시아 스님이 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희생자들의 죽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스님의 기도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특별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볼코고노프 지진(慈眞)스님. 스님은 13살 때 운동 삼아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동양문화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그 인연으로 러시아 대학에서도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일본불교와 문화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던 스님은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일본인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됐다. 마침 아내의 친정이 진언종 사찰이었던 것을 인연으로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됐다. 스님은 "대학에서도 진언종을 연구한 인연이 이렇게 닿은 게 아닌가"라며 기연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 교차한다. 그저 슬프고 고통스럽다"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웃에 살았던 2차 대전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그분이 말한 것은 전승의 기쁨이 아닌 무고한 희생자가 쓰러지는 전쟁의 괴로움이었다"면서 "전쟁은 오직 비극뿐. 그 어떤 평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어릴 적 친구들 중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거나, 우크라이나 사람과 결혼한 이들도 있다. 처음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나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우크라이나인과 결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며 "러시아의 어머니나 친구들이 러시아를 정당화하며 전쟁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너무나 큰 상처에 현재 남편과 독일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우크라이나로 귀화를 고민 중이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스님 역시 러시아의 동생이 군대에 징병될 수 있다며 전쟁의 비극은 당장 우리 옆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처가이자 출가본사인 오사카의 뇨간지(如願寺)에 머물며 매일 빠른 종전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곤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다시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면 개인들 간의 작은 충돌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모여 열매를 맺으면 슬픈 전쟁도 반드시 끝난다고 믿는다"며 온화한 표정 속에 강력한 말을 전했다.

스님은 5월 27일부터 시의 젊은 스님들이 모여 만든 불교청년회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세계평화를 위한 행각순례'의 선두에 선다. 스님은 "러시아인이기에 비판받을 수도 있다.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출가자로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 美 티베트문제 특별조정관 접견

5월 19일, 국무부 차관 첫 만남
중국 반발…"정치망명자" 비난


우즈라 제야 차관과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미국 정부 티베트문제 특별조정관인 우즈라 제야 국무부 차관과 그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만남에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적으로 맹 반발에 나섰으며, 망명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판첸라마의 행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다.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파율' 등 외신들은 5월 19일 달라이라마의 접견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5월 19일 오전, 다람살라의 관저에서 열린 접견에서 우즈라 제야 차관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항상 전하는 달라이라마께 감사를 표하고 "미국 대통령과 국민들을 대신해 인사를 전한다"며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달라이라마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접견에 외신들의 주목이 집중됐다.

달라이라마는 이 만남에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며 미국과 인도의 정치체계를 칭찬했다. 또한 "특히 인도에서 모든 종교전통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주목할 만한 예시"라고 강조했다. 또 달라이라마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 스스로의 사고체계조차 크게 바뀌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사라졌다"고 이례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달라이라마와 제야 차관은 티베트의 전통문화 자연환경, 언어와 종교전통의 보존과 복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제야 차관은 이후 티베트 망명의회와 티베트 기록보관소 등을 방문했다.

중국은 이 만남에 대해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정부가 티베트 분리주의자와 결탁했으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달라이라마는 종교인을 위장한 정치망명자"라고 비난하며 "중국을 분리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며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의 방문에 맞추어 인도의 망명 티베트인들은 1995년 중국정부의 납치로 행방불명된 판첸라마의 행방에 대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판첸라마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자리하는 중요한 지위로 달라이라마가 지목한 판첸라마는 95년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중앙 티베트 여성협회는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티베트 내 인권 실태를 판단해 달라. 사라진 우리의 스승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연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모디총리, 룸비니 방문

베삭데이 맞아 네팔 총리 함께
국제 불교문화유산센터 기공도


부처님의 탄생지인 마야데비 사원에 헌등하는 모디 인도 총리와 데우바 네팔 총리. 사진출처=나렌드라 모디총리 공식 SNS

네팔과의 경제 및 국경문제 회담을 위해 네팔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네팔 룸비니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총리가 함께했다. 양 총리는 룸비니에 세워질 국제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에 참석했다. 불교로 묶인 양국의 이야기를 5월 20일 인도의 '트리뷴 인디아' '인디안 타임즈' 등이 보도했다.

UN이 공식으로 인정한 베삭데이에 맞춰 5월16일 모디 인도 총리와 데우바 네팔 총리는 함께 룸비니를 방문, 부처님이 태어나신 마야데비 사원을 참배하고 공양을 올렸다. 두 총리는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룸비니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은 채, 주요한 성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총리는 마야데비 사원에 헌등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양국에 공통된 유산, 문화, 믿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 자산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자비를 가르치신 부처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세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이후 룸비니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총리는 6개 협정을 교환했으며 이중 5개는 양국의 교육과 문화적 유대 강화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총리는 또한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에 설립될 '국제불교문화유산센터'의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완공 이후 국제불교도 연맹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인도 현지언론들은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에 대해 "최근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네팔의 강력한 선전에 모디 총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탄생지는 네팔, 주요 활동지는 인도로 양국의 여론이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 대해서 단순한 문화적 방문이 아닌 불교를 통한 네팔 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양국의 행보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마가드대 불교과 학생 유치 고군분투

학생 36명 · 교직원 2명뿐
정치 · 재정 문제로 운영난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서 온 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인도 비하르 마가드대학교 불교학과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 등 외신은 5월 20일 "현재 캄보디아와 미얀마로부터 온 몇 안 되는 36명의 학생들만 있다"며 "그 학과는 오직 2명의 교사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학과의 부교수인 비슈누 샹카르(Vishnu Shankar) 박사는 "불교학과가 최근까지만 해도 꽤 만족스럽게 운영돼 왔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교직원 부족으로 인해 학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코로나 19 사태 속에 이곳까지 와서 불교학 강좌를 개강할 여건이 안 됐다"며 "게다가 대학 시험체계 마저도 엉망이 됐다"고 부연했다.

마가드대학은 1962년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교를 기리기 위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전해지는 보드가야에 세워졌다. 불교학과는 1984년에 키드와이 총독과 스리랑카 고등판무관에 의해 처음 창설됐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학과는 20세기 말 정치적 독재자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후부터 급격히 사회적 위상을 잃었다. 이어 부정 학위 및 수료증을 수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까지 했다.

관련 당국은 학과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2021년 학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불교학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소수의 교직원, 취약한 재정상황, 행정적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평가보고서는 "자격 있는 교수진을 갖춤으로써 불교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관망했다.

샹카르 박사는 "학과의 본 모습을 되찾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생들의 취업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 객원기자

